



즉시 배포용: 2018 년 4 월 19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버펄로에서 중산층 지원법(MIDDLE CLASS RECOVERY ACT) 주요 사항 발표

버펄로 빌리언 계획(Buffalo Billion Initiative), 기술 전 분야에서 신생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지원. 버펄로 대학교(University of Buffalo), 3,200 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으로 혁신 허브(Innovation Hub)의 제 1 단계 수립

중산층 감세(Middle Class Tax Cut) 및 지방 정부 재산세 감세 공제(Local Property Tax Relief Credit)의 단계적 도입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의 제 2 단계 출범을 위한 법안 서명, 수업료 무상 대학교 지원 자격을 연간 11 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가정으로 확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일자리에 투자하고, 세금을 줄이며,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주지사의 공약을 이행하는 중산층 지원법(Middle Class Recovery Act)의 주요 사항을 버펄로에서 발표했습니다. 주요 사항에는 (1) 3,200 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웨스턴 뉴욕 신생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제공하는 혁신 허브(Innovation Hub) 출범, (2) 중산층 감세(Middle Class Tax Cut) 및 지방 정부 재산세 감세 공제(Local Property Tax Relief Credit)의 계속되는 단계적 도입, (3) 소득 자격이 되는 가구의 기준을 확대하여 자격이 되는 뉴욕 주민 가구의 연간 수입을 11 만 달러까지 허용하는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의 제 2 단계를 출범시키는 법안에 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산층 뉴욕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 거리들과 비용 상승에 직면하고 있는 시기에, 뉴욕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교육, 모든 이를 위한 기회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지원법(Middle Class Recovery act)은 더욱 강력하고 미래가 밝은 뉴욕을 만들 수 있도록, 웨스턴 뉴욕과 뉴욕주 전 지역에서 성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공을 위한 길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버펄로의 혁신 허브(Innovation Hub)

엠페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이사회(Empire State Development Board of Directors)는 오늘 회의를 소집하여, 버펄로 대학교(University at Buffalo, UB)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게 될 혁신 허브(Innovation Hub)를 출범할 수 있도록 3,200 만 달러의 투자를 승인했습니다. 혁신 허브(Innovation Hub)의 목표는 버펄로 대학교(University at Buffalo, UB), 하우프트만-우드워드 의료 연구소(Hauptman-Woodward Medical Research Institute), 로즈웰 파크 종합 암 센터(Roswell Park Comprehensive Cancer Center), 칼레이다 헬스(Kaleida Health), 제이콥스 연구소(Jacobs Institute) 등에서 만들어진 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대폭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웨스턴 뉴욕에서 개인 투자와 일자리를 궁극적으로 확대하게 될 기술 회사들의 창업과 성장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중산층 지원법(Middle Class Recovery Act)의 일환으로 근면한 뉴욕 가정의 비용과 세금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계획과 기타 프로그램들의 일환인 투자 덕분에 버펄로의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혁신 허브(Innovation Hub)의 출범은 21 세기 첨단 기술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입증합니다. 동시에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의 제 2 단계는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버펄로 지역사회와 그 외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버펄로 대학교(UB)의 **Satish K. Tripathi**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영하는 모든 기업가 정신 허브의 중심에는 연구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생명 과학 및 재료 과학에서 IT 및 지속 가능성에 이르는 분야까지, 저희의 광범위한 교수진의 전문 지식, 지역사회에 참여한 오랜 역사, 학생과 교수진의 기업 협력에 대한 확립된 기록을 통해, 버펄로 대학교(UB)는 기업가 정신이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역동적인 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성공적인 기업가 생태계와 공동체에는 새로운 혁신, 비즈니스 전문 지식과 지원, 벤처 기금, 창업 인큐베이터, 특수 장비, 재능있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연구 등 몇 가지 핵심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버펄로 대학교(UB)와 허브(Hub) 파트너들은 교수진, 직원, 연구원, 학생들로 구성된 강력한 혁신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허브(Hub)는 신생 스타트업 기업을 통해 혁신을 교실, 실험실 또는 진료소에서 시장으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 혁신 허브(Innovation Hub)는 (1) 버펄로 나이아가라 의대 캠퍼스(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 BNMC)에 기술 스타트업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터를 제공하고, (2) 기술 상용화 투자 기금을 조성하며, (3) 혁신가의 아이디어를 시장으로 안내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및 기타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혁신 허브(Innovation Hub)는 버펄로의 기업가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는 주정부의 두 번째 버펄로 빌리언(Buffalo Billion) 계획 투자를 유치합니다. 43North 대회는 전 세계의 완성된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혁신 허브(Innovation Hub)는 이 지역의 자체 연구 기관과 개인들의 혁신을 웨스턴 뉴욕에서 성장하게 될 회사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주력합니다.

지난 1 월의 주지사의 2017 년 시정방침(2017 State of the State) 연설에서, Cuomo 주지사는 웨스턴 뉴욕에 5 억 달러를 투자하는 버펄로 빌리언 계획(Buffalo Billion Initiative)의 제 2 단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버펄로 나이아가라 의대 캠퍼스(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에서 혁신 허브(Innovation Hub)를 만들기 위한 4,000 만 달러의 보조금이 할당되었습니다. 이 허브(Hub)는 버펄로 나이아가라 지역 기업 생태계 발전을 돕기 위해, 버펄로 대학교(UB), 43North, 로스웰 파크(Roswell Park) 등과 같은 버펄로 나이아가라 의대 캠퍼스(BNMC) 파트너 단체들의 자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미래를 위해 800 만 달러를 남겨 놓은 보조금은 추후에 엠포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이사회(ESD Board of Directors)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혁신 허브 프로젝트(Innovation Hub project)의 세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버펄로 대학교(UB)의 생물 정보학 및 생명 과학 우수 센터(Center of Excellence for Bioinformatics & Life Sciences, CBLIS)를 창업 인큐베이터 및 기업 지원 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될 약 700 만 달러 규모의 기획, 설계, 개보수 공사, 건설 공사, 가구, 집기, 장비 기금, (2) 인큐베이터 공간은 로스웰 파크 종합 암 센터(Roswell Park Comprehensive Cancer Center), 칼레이다 헬스(Kaleida Health), 하우프트만-우드워드 의료 연구소(Hauptman-Woodward Medical Research Institute), 제이콥스 연구소(Jacobs Institute) 등과 같이 버펄로 대학교(UB) 및 파트너 단체와 제휴한 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펄로 대학교(UB)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 이벤트, 교육, 관련 서비스에 생물 정보학 및 생명 과학 우수 센터(CBLIS)의 추가 공간을 활용할 것입니다. 인큐베이터 공간의 제 1 단계는 2019 년 말에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1) 신생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개념 증명과 사전 씨드 투자 및 씨드 투자를 제공하기 위한 1,350 만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 설립. (2) 이 기금은 2019 년 초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 신생 스타트업 기업 기회 수와 질을 높이기 위해, 버펄로 대학교(UB) 및 참여 기관의 교수진, 직원, 학생들에게 지원 활동 기회 및 참여 기회 제공. (2) 신생 스타트업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실행하며, 개발의 모든 단계를 통해 신생 스타트업 기업을 인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3) 새로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직원 지원. 이 사항을 위해 5 년간 약 1,150 만 달러의 기금을 활용합니다. 프로그램은 올해 시작됩니다.

감세

연방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부터 뉴욕 주민 보호: 최근 제정된 연방 세법은 많은 뉴욕 주민에게 재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 공제 제도를 폐지하여, 이 법은 중산층 가정의 재산세 및 주정부 소득세를 20 퍼센트에서 25 퍼센트 정도 효과적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연방 정부의 계획과 소득세 공제 제도 및 재산세 공제 제도의 폐지에 대해 반대하여 맞서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공세에 대처하는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

- **뉴욕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자선 기부 확대:**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 따라 주정부가 운영하는 두 가지 새로운 자선 기부 기금을 창설하여 뉴욕의 건강관리와 교육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기부금을 받습니다. 납세자는 공제금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이러한 자선 기부금을 연방 정부 및 주정부 세금 환급 공제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를 한 모든 납세자는 과세 연도에 기부한 기부금의 85 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정부 세금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이 법안은 교육청과 기타 지방정부가 자선 기금을 설립하도록 승인합니다. 이 기금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과 비례하여 같은 금액의 지방 정부 재산세를 감세(지방 정부 세금 공제금의 형태)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 보상 비용 프로그램(Employer Compensation Expense Program, ECEP)의 대안 수립:** 연방세 개혁법이 개인에 대한 주 및 지방세 공제금 전액을 삭감하는 대신에 기업은 이런 한도에서 분리되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 따라, 고용주는 새로운 고용주 보상 비용 프로그램(ECEP) 체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고용주는 직원당 40,000 달러를 초과한 모든 연간 급여액에 대해 5%의 세금을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3년 이상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진보적인 개인 소득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고용주 보상 비용 프로그램(ECEP) 가치에 해당하는 새로운 세금 공제는 임금에서 떼는 개인 소득세를 삭감하여 고용주 보상 비용 프로그램(ECEP)의 대상이 되는 주세 신고자들의 실수령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연방 정부 세법으로부터 분리:** 이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은 필요 시 연방세 인상으로만 초래되는 15억 달러 이상의 주세 인상을 막기 위해 주세법을 연방세법으로부터 분리합니다.

중산층 감세의 단계별 지속: 이 예산은 중산층 감세의 단계적 도입을 지원합니다. 2018년에 평균 감세액은 총 250 달러가 될 것이며, 완전히 효력이 발생할 경우 뉴욕 주민 600만 명이 연간 평균 700 달러씩 감세받게 됩니다. 완전히 단계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70년의 기간 중 가장 낮은 새로운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즉 4-15만 달러의

소득인 경우 세율이 6.45 퍼센트에서 5.5 퍼센트로 낮아지며, 소득이 15-30 만 달러에 이를 경우 세율이 6.65 퍼센트에서 6 퍼센트로 낮아집니다. 새로운 낮은 세율은 중산층 뉴욕 주민이 2025 년까지 매년 42 억 달러를 절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완전히 단계적으로 도입될 경우, 웨스턴 뉴욕 주민 345,000 명의 세금이 평균 651 달러의 감면됩니다.

지방 정부 재산세 감세 공제(Property Tax Relief Credit) 지속: 2015 년에 제정된 재산세 공제(Property Tax Credit) 제도로 올 해에만 주택 소유자 260 만 명의 지방 정부 재산세가 평균 380 달러씩 감세됩니다. 2019 년까지 이 프로그램은 재산세 13 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감세하여 평균 530 달러씩 공제하게 됩니다.

고등교육 이용 기회 확대

Cuomo 주지사는 오늘, 엑셀시어 장학금 프로그램(Excelsior Scholarship Program)의 제 2 단계를 출범시키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고 11 만 달러의 가구 소득이 있는 뉴욕 주민까지 대상이 되도록, 엑셀시어 장학금 프로그램(Excelsior Scholarship Program)의 소득 자격 기준을 확대합니다. 완전히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연간 최고 125,000 달러를 버는 가정을 위해 뉴욕의 공립 대학교들이 수업료가 무상인 대학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2019 회계연도 예산(FY 2019 Budget)에는 엑셀시어 프로그램(Excelsior program)으로 학생 약 27,000 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1 억 1,800 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뉴욕주 학비 보조 프로그램(New York State Tuition Assistance Program)을 포함한 다른 등록금 지원과 더불어,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완전히 도입될 경우,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정규 학생 중 약 53 퍼센트, 즉 21 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이 무상 등록금 제도를 통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학생은 반드시 뉴욕주 주민이며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또는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2 년제 혹은 4 년제 대학과정에 들어갈 예정이고 매년 30 학점(여름과 겨울 학기 포함)을 따서 2 년제의 준학사 학위 혹은 4 년제의 학사 학위를 예정한 졸업 시기에 맞춰야 엑셀시어 장학금(Excelsior Scholarship) 자격에 부합됩니다. 장학금 수혜자는 이 기간에 반드시 뉴욕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 소득이 125,000 달러 이하의 940,000 가구 또는 80%에 육박하는 중산층 가족과 개인들이 모든 과정을 마쳤을 때 무료 등록금으로 대학을 마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학생 분포 현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에서는 약 3 만 명의 정규 학부 학생들이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또는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의 학교들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중 약 절반이 엑셀시어 장학금 프로그램(Excelsior Scholarship program)과 뉴욕주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TAP)

보조금 및 펠(Pell) 연방 보조금, 기타 보조금 등과 같은 다른 수업료 지원 보조금 등을 통해 무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